“업보는 개인 운명 아닌 사회 윤리”



북조 불교의 업보 관념과 사회교화 연구
활산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3만8000원

12년 연구 집약…북조 ‘업’ 연구
교리 넘어 사회 통합 원리 규명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그게 다 네 업보야.”

우리는 흔히 ‘업보(業報)’를 행동에 따른 결과나 운명 정도로 이해한다. 그러나 불교의 업보 관념은 개인의 윤리적 차원을 넘어 사회 질서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원리로도 기능했다. 〈북조 불교의 업보 관념과 사회교화 연구〉는 업보를 사회와 문화의 지평에서 새롭게 읽어낸 학술서다.

이 책은 활산 스님이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12년간 진행한 연구를 집약한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엮었다. 중국 북조(北朝) 불교 사상의 집대성으로 평가받는 〈대승의장(大乘義章)〉을 중심으로 업보 관념의 교학적 체계를 분석하는 한편, 비문(碑文)과 불상 조성 기록, 조상제기(造像題記), 벽화 등 생활 세계의 자료를 함께 검토해 업보가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입체적으로 추적했다.

여러 민족이 뒤섞여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던 북조 사회에서 불교는 통치층과 민중 모두로부터 광범한 지지를 받으며 확산됐고, 업보 관념은 중국 전통의 인과응보 사상과 만나 사회를 통합하는 새로운 윤리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저자는 당시 업보와 윤회 사상이 확산되면서 ‘신분과 출신은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공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됐다고 설명한다. 혈연과 계급 중심의 질서를 넘어 누구나 선업(善業)을 쌓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은 다민족 사회를 묶는 공통의 도덕 규범으로 작동했고, 불교는 이러한 업보 관념을 통해 사회 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업과 업보의 개념도 명확히 구분한다. 업은 신구의(身口意) 삼업의 행위와 그 능동성을 의미하고, 업보는 그러한 행위가 맺는 결과는 가리킨다.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지만, 업이 행위의 선택과 의지에 주목한다면 업보는 그 결과를 해석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으로서 교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저자는 업·업보라는 주제에 주목하게 된 이유를 “업에 대한 사유는 불교 교학 전반을 관통하며, 그 구조적 핵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근본 원리로 기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무아, 연기, 사성제, 참회 등 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불교의 핵심 교리와 실천도 업을 중심에 두고 해석하면 생사와 행위, 윤회라는 하나의 흐름 안에서 연결된다는 것이다. 또한 업을 통해 불교를 이해할 때, 교리는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과 맞닿은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여러 민족이 뒤섞여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던 중국 북조 사회에서 업보 관념은 사회를 통합하는 새로운 윤리 규범으로 주목받았다. 사진은 중국 산시성 운강석굴의 북위시대 불상.
사진 출처=픽사베이

책은 2장과 3장에서 업의 교리적 해석을 살피고, 3장과 4장에서는 사람들이 죄업을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며 이를 가족과 이웃에게 회향하려 했던 흔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업보가 경전 속 추상적 개념이 아이라 실제 삶을 이끌었던 생활 윤리였음을 실증 자료를 통해 밝혀낸 것이다.

칭화대 셩카이 교수도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셩카이 교수는 “업 관념을 매개로 중국 사회의 도덕 판단 기준이 외적 행위에서 내적 동기로 이동했고, ‘행위 윤리’ 중심의 사고가 ‘심성 윤리’로 심화되는 사상적 전환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저자는 “북조 불교의 업 관념은 삼국, 통일신라, 고려를 거쳐 지속적으로 공유해 온 사상적 기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며 “따라서 이 시대 업 관념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사상을 보다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지점을 제공한다”고 의미를 짚었다.

논쟁으로 다시 읽는 조선 불교



논쟁으로 보는 조선시대 불교사상사
이종수 지음
경인문화사
2만9000원

유불·선교·심성·선 논쟁 등
15~19세기 주요 법론 조명

논쟁을 중심축 삼아 조선시대 불교사상사를 살핀 학술서가 나왔다. 이종수 국립순천대 교수가 2010년 쓴 박사학위 논문에 후속 연구를 보완하고 윤문해 발간한 〈논쟁으로 보는 조선시대 불교사상사〉다. 책은 4장에 걸쳐 유불·선교·심성·선 논쟁 등 당대 주요 논쟁의 발발 배경과 영향을 짚어가며 조선시대 불교사상사를 재구성한다.

1장은 사상사적 배경을 다룬다. 저자는 조선 불교 정책을 설명하는 숭유억불(崇儒抑佛)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대신 정치적 위상은 고려의 상불하유(上佛下儒)와 조선의 상유하불(上儒下佛)로, 신앙적 위상은 고려의 귀족불교와 조선의 서민불교로 대비해 설명한다. 나아가 조선 전기 선종이 교종을 이끌어간 선주교종(禪主敎從)에서 후기 선교염불겸수(禪敎念佛兼修)로 이어지는 흐름과 경상도 지역 사찰의 불서 간행 양상까지 조선 전·후기 불교사상 기반의 변화를 조명한다.

2장부터 3장까지는 본격적으로 당대 논쟁을 다룬다. 15세기 유불 논쟁에서는 정도전의 〈불씨잡변〉에서 제기한 불교 교리 비판과 불교 무익론 등을 짚고, 이에 맞선 불교계의 대응을 확인한다. 유교와 불교의 이치와 교화의 방편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 득통 기화의 〈현정론〉, 불교가 유교·도교보다 더 수승하다는 작자미상의 〈유석질의론〉, 매월당 김시습의 ‘십장문’을 통해 대응 변론을 분석한다.

16세기 선교(禪敎) 논쟁에서는 〈허응당집〉을 통해 선교일치를 외친 허응 보우와 선(禪)의 우위를 주장한 청허 휴정의 선승교열관(禪勝敎劣觀)을 비교하며 불교사적 평가를 살핀다.

이밖에도 책은 17~18세기 원돈문의 심성 논쟁, 18세기 기성 쾌선의 염불문 수승론, 19세기 백파 긍선과 초의 의순의 선 논쟁 등 조선 후기까지 이어진 논쟁의 궤적을 면밀하게 좇는다.
배희정 기자

“부처님 가르침, AI시대 이정표”



시골농부의 깨달음 수업, 자기 강화
소공 지음
어의운하
2만7000원

블로거 소공의 두 번째 책
인지과학으로 깨달음 풀이
“깨달음, 뇌 신경망의 변화”

깨달음을 주제로 대중과 소통해 온 블로거 소공이 두 번째 책 〈시골농부의 깨달음 수업, 자기 강화〉를 펴냈다. 깨달음의 방향을 제시한 전작에 이어, 그 길을 완주하도록 돕는 완결판이다. 블로그 등에 써온 글을 △나와 세계 △자기 붕괴 △자기의 말 △전과 후가 다르지 않다 △알아차림 △자유의지 △인과에 밝아진다 △자기 강화 △안도감 △깨달음 연대의 10장으로 나눠 담았다.

과거 기독교 신앙인이자 IT 기업 창업자였던 저자는 이 책에서 ‘깨달음’에 담긴 종교적 색채를 더는 대신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무아(無我)와 연기(緣起)라는 불교의 핵심 가치를 논리적으로 풀어낸다.

저자는 깨달음을 신비로운 관념의 획득이나 존재의 질적 변화가 아닌, 뇌 신경망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재정의한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자기방어 알고리즘’을 구축하며 진화해 왔는데, 수행은 이 습관적 회로를 물리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또 뇌 내에서 ‘자기 해체 알고리즘’이 ‘자기방어 알고리즘’의 임계점을 넘어 주도권을 잡게 되는 불가역적인 물리적 변화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저자는 깨달음이 단순한 정보의 획득이 아니라, 나와 세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논리와 가치 체계를 갖추게 되어 기존 알음알이의 오류가 드러나고, 변화된 경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변증법적 진화가 삶의 새 지평을 연다고 강조한다. 깨달음이 ‘시선의 변화’일 뿐이지만, 그 시선 하나가 바뀌면 전과 후가 다르지 않으면서도, 삶의 모든 순간이 찬란한 안도감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이어 ‘나’는 기억·판단·감정 등의 연기적 집합체로서, ‘나’라는 주체가 없다는 무아의 이치를 이해해야 비로소 자신을 보호하려는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정된 자아를 내려놓을 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작동하는 ‘기능으로서의 나’를 경쾌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타인과의 갈등이나 사회 문제 역시 내면과 외부 환경이 일으킨 일시적인 현상으로 바라볼 때, 상대를 미워하거나 자책하는 소모적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책을 읽다 보면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통제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인과의 법칙을 투명하게 지켜봄으로써 불필요한 저항을 멈출 때 비로소 습관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흐름을 타게 된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라는 사회적 통념도 뒤집는다. 무언가를 향한 간절한 노력 자체가 오히려 ‘나’를 강화하는 욕망일 수 있기에 수행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헛힘을 빼는 과정이라고 역설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깨달음의 핵심은 ‘저절로’, ‘스스로’, ‘평등하게’다. “깨달음은 이 ‘저절로’에 대한 체험과 그로 인한 신경망의 변형이며, 나와 세계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 ‘저절로’가 내면화되는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즉, 깨달음은 애써 얻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닿아 자연스레 일어나며, 모든 존재가 이미 완전하므로 누군가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모두가 이미 깨달아 있는 상태라면 왜 다시 깨달음을 강조하는 걸까. 저자는 그 궁극적 목적을 ‘자기 강화’라고 답한다. “무아를 체득하는 수행은 자기 해체의 과정이지만 최종 결과물은 자기 강화”라며 “물론 이 자기는 과거의 자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AI 등 신기술로 인류가 새로운 종으로 분화할 조짐을 보이는 격변의 시대, 저자는 이를 수용할 유일한 틀로 2500년 전 부처님이 밝혀낸 무아와 연기의 세계관을 꼽는다. 인과의 엄중함을 아는 개인의 평온이 타인에게 전이되고 공명할 때 사회 전체가 안도에 이를 수 있으며, 이러한 깨어난 이들의 연대가 갈림길에 선 인류를 안전한 진화로 이끌기를 염원한다.
배희정 기자

“덕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욕망의 덕질 속에서 최애를 발견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비구니연습생’의 방구석 불교 탐구 생활





최애는 부처님
비구니연습생 지음 | 260쪽 | 19,000원

갓생 살 자신도 없고, 인생은 어차피 내 적성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날들.
현생에 치여 마음 둘 곳 없는 우리에겐 거창한 깨달음보다 유쾌한 과몰입이 필요하다.
박물관은 콘서트장, 절집은 팬미팅장으로 만든 비구니연습생의 ‘덕후 레이더’에 부처님이 포착됐다.

“목차부터 군침이 돈다. 홀린 듯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교 입덕 완료!”
- 해탈컴퍼니 주여진 대표(힙불교 열풍의 주역『깨닫다!』 저자)

“번뇌와 욕망 사이를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이보다 더 유쾌한 덕질이 또 있을까?”
- 묘장 스님(〈나는 절로〉〈부처님 생카〉 기획)

“애니와 아이돌 이야기 속에서 어느새 불교의 깊은 물음과 마주하게 된다.”
- 이상엽 서울대 교수(〈벌거벗은 세계사〉 불교 편 강연)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